

번역가의 번역이야기

‘번역’은 얼마나 삶에 닿아 있는가

번역가를 괴롭히는 변화무쌍한 말의 세계

이윤기

소설가·번역가

미국 어느 대학도시 쇼핑센터에서 겪은 일이다. 물건값 셈하려고 계산대 앞에 서자 남자 계원이 내게 말했다.

“오하요우 고자이마스?”

아니다, 입마…… 나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니 하오마?”

그것도 아니다, 입마…… 나는 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제서야 계원이 제대로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그제서야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계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여러 나라 인사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냐고 물었다.

“고객에게 친근감을 주려고 여러 나라 인사법을 배워요. 나는 15개 국어 인사말을 아는데, 문제는 고객의 국적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산을 끝나치고 계산대를 나오는데 계원이 내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가세요…… 꼬너……”

“안녕 가세요”는 알겠는데 “꼬너”는 무슨 말일까 싶어서 물어보았다.

“‘안녕’이라는 말 아닌가요.”

나는 그 말, 어디에서 배웠느냐고 물어 보았다.

“기숙사 한국인들은 작별 인사할 때 꼭 그러데요. ‘꼬너’하고요”

“에이, 전화할 때만 그렇지”

돌아서서 웃었다. 언어의 세계에서 단어의 의미 전이(轉移)는 이렇듯이 변화무쌍한데 이것이 번역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 말이라는 것이 그렇다.

사전을 열면 말의 역사가 보인다. 그런데도 번역가는 사전 안 펴고 어물쩍 넘어가고 싶다는 유혹과 하룻밤에도

수십번씩 싸워야 한다. ‘제록스’와 ‘샴프’는 상표명이 ‘복사하다’, ‘머리감다’는 의미의 일반 동사로 바뀐 대표적인 영어에 속한다. 사전을 열어야 그렇게 바뀐 속사정을 알 수 있다. ‘호치키스’는 원래 기관총 상표명이다. 전쟁이 끝나 기관총이 잘 안 팔리니까 그 기관총 탄창에 총알 쥘여넣는 기술을 원용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아는 호치키스다.

나는 남의 오역(誤譯)을 지적하고 그걸 씹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것만 모으면 포복절도할 읽을 거리가 되겠지만 않는다. 번역가에게 오역은 숙명이다. 내 눈에 들보가 들어 있는 판에 남의 손톱 밑 가시 걱정이라니 당치 않다. 그러나 번역하는 사람이 사전 안 찾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버릇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뜻에서 하나만 소개한다.

나는 십수년 전 어떤 소설 한국어 번역판에서 “그는 자기의 루거를 불태웠다”는 문장을 읽고는 웃었다. 원문을 확인할

것도 없이 “He fired his Luger”일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이다. ‘루거’는 독일제 9밀리 권총의 상표명이다. 따라서 그 문장의 정확한 번역은 “그는 권총을 쏘았다”가 맞다.

그런데도 나는 사전을 믿지 않는다. 까닭을 다 쓰려면 따로 책 한 권이 실히 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렇다. 사전은 길라잡이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 실려 있는 말은 화석화(化石化)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펄펄 살아 있는 말이 아니다. 따라서 사전의 말을 좇아 번역해 놓으면 죽은 문장이 되어버린다. 얼마나 죽는지 예를 들어 보겠다.

“This confirms an authenticity and antiquity of myth(이것이 신화의 확실성과 고유성을 확증한다).”

흠잡을 데 없는 번역이다. 사전을 펼쳐 놓고는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다. 나는 우리나라의 많은 책들이 이런 역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통탄한다. 일본의 고약한 본을 본 증거다. ‘확실성과 고유성을 확증’한다니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진짜 의미는 전해지지 않는다.

“이것만 보아도 신화가 얼마나 우리 삶에 닿아 있는 것, 오래된 것인지 알 수 있다.” 신화만 그런가? 번역도 그렇다. ❖

번역, 본질을 찾아내는 꿈꾸기

번역기계가 채울 수 없는 상상력과 이미지 찾기

김석희

소설가·번역가

번역과 관련하여 요즘 두가지 현실이 눈에 띈다. 번역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로서 착잡한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 하나는 언제부터인가 도하 신문마다 크고 작은 지면을 차지하며 등장하기 시작한 광고, 즉 ‘00번역원’이니 ‘XX번역개발원’이니 하는 명의로 나오고 있는 ‘번역취업반’ 또는 ‘번역사가 되려면’ 따위의 광고가 그렇다. 금시초문인

‘국제번역가협회’며 ‘한국번역가협회’가 있는 모양이고, 그런 단체에서 주관하는 ‘번역능력인정시험’이나 ‘번역사시험’도 있다고 한다. 이런 시험에 통과하여 ‘초별번역사’나 ‘2급, 3급 번역사’가 되면 ‘재택근무 가능한 고소득 프리랜서’로서… 운운.

이런 광고가 심심찮게 눈에 띄는 것을 보면, 뜻밖에도 ‘번역사’를 꿈꾸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증거이겠는데(그렇지 않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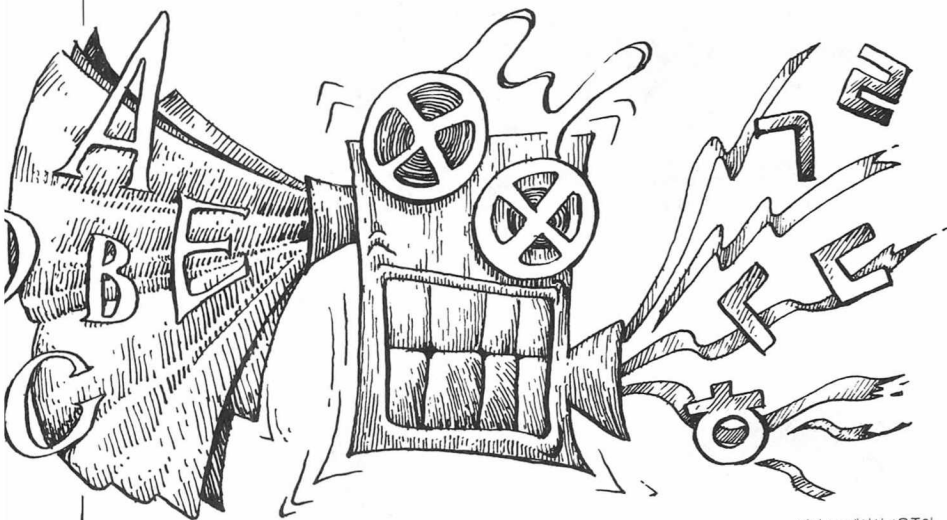
광고비를 건지기도 힘들 테니까), 번역도 이제는 인기 직종이 되려는 것일까.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스타의 반열에 올라 텔레비전 오락 프로에 초대 손님으로 등장하게 되려나?

하기야 번역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고, 너나없이 이 일에 뛰어들어 그 수준을 바닥으로 끌어내린 작태가 어제오늘 시작된 것도 아님에야, 번역을 하나의 기능(機能)으로 쳐서 거기에 등급을 매기겠다고 나서는 발상, 아니 그 장삿속과 그 뻔한 수법에 말려들어 ‘고소득 프리랜서’를 꿈꾸는 이들을 마냥 탓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지 싶다.

더구나 그 장삿속의 허구를 파헤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경고음을 발해야 할 신문들이, 그러기는 커녕 그 허울좋은 광고를 무턱대고 받아 신고 있으니, 언론의 기능(사명까지는 말고라도)에 대해 원론적인 잣대를 들이대어 참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비단 이 문제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겠고.

그리고 또 하나. 언젠가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물은 적이 있다. 번역기계의 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자못 심각한 표정으로 던진 이 질문 속에는, 밥줄 끊기기 전에 다른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담겨 있었다.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그 반대로 번역하는 소프트웨어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야 신문을 네 가지나 구독하는 나로서는 모르는 바도 아닌 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신형이 나오면 구형은 폐기돼야겠지. 번역기계라는 말은 내가 종종 나 자신을 놀릴 때 써먹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초보적인 예술이지만, 번역은 하나의 언어(작품, 문화)를 그 울타리 밖으로 옮겨 나르는 일이다. 하나의 텍스트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번역가의 행낭을 거치는 길밖에 없다. 그 과정에는 사전적 풀이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상상력과 이미지 찾기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번역은 낭만주의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다. 번역이 기계적 고전주의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일러스트레이션 / 윤주영

베끼기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중세의 문필가는 고전을 베끼는 자였다. 그러나 번역은 필사(筆寫)가 아니다. 중세 암흑기에 빛을 던진 이들은 필사 과정에 토를 달고 침식을 가한 풍상가들이었다. 그들은 말하자면 새롭게 해석했다. 그럼으로써 신성불가침의 도그마를 무너뜨린 것이다. 종교개혁은 고전어 성서를 각국의 언어로 번역했으며, 근대문학은 모국어의 발달과 함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번역은 곧 해석이다. 해석은 텍스트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콘텍스트를 언어내는

과정이다. 번역이 단순한 필사나 전달이라면, 번역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기계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계에 의한 번역은 한낱 정보일 뿐이다. 기계는 '의도적 오류'를 범할 수 없다. 본질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번역가의 경우도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다. 본질적인 것은 언어 이전에 있다. 번역은 그것을 찾아내는 꿈꾸기이다. 그 일을 기계가 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러므로 번역'가'를 꿈꾸는 이들이여, 절망하지 마시라. ❖

유토피아를 향한 '번역'의 궤도

낮선 말과의 씨름 없는 세계를 꿈꾸며

차경아
번역가

어쩌다 남의 나라말을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의) 길로 들어섰을까? 그 또래의 대개가 그렇듯이 인생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전망에 대한 예감도 없이 어설프게 남의 나라말과 문학을 대학의 전공으로 택하여 졸업한 뒤 가정이라는 테두리로 들어섰을 때, 작지만 내게는 더없이 소중한 그 세계를 크게 다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번역이라는 작업은 큰 매력으로 다가 왔다.

사전과 종이와 펜, 그리고 틈틈이 요령껏 뽑아낼 수 있는 나만의 시간과 노력이면 그 일은 그런 대로 가능한 듯이 여겨졌고, 어느새 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그 작업에 열광하게 되었다. 이 일이야말로 내 분수와 적성에 맞는 '나의 일'이라고 여길 만큼, 이를테면 뒷전에서 구경꾼으로 머물러야 마음 편한 내 성격에 안성맞춤의 일이라고, 대가(大家)의 큰 목청 뒤에 숨어 무대

측면에서 반주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 설득시키면서 말이다.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번역

내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오스트리아의 여류작가 I. 바하만의 단편집 《30세》와 소설 《말리나》의 번역에 몰입했던 시간은 바로 당시 나의 삶의 프리즘처럼 기억된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나온 나의 번역본들은 '번역'이 '번역'이 될 수 있음을 되돌아볼 틈도 없이, 젊은 열기의 악셀러터를 타고 무모하달 수밖에 없이 터져나온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몇 년 후, 바하만의 많은 작품에서 무대가 된 빈을 실제로 체험할 기회를 가지고 순전한 호기심에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현장을 찾아보면서, 나 스스로 번역과정에서 저지른 적잖은 오류를 확인하고는 실소했던 일도 잊을 수 없다.

아마도 그것은 소설 《말리나》에 나오는 한 대목이었을 것이다. 빈 3구 옹가른가세 몇번지였던가. 번역하던 당시 나의 상상 속에서 그 집 앞에는 거대한 사자상이 문 양편에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그 번지를 찾아낸 내 시야에는 사자상 따위는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보아도 없었다.

“그 사이에 그것을 없애버린 걸까, 아니면 그것은 단지 작가의 소설적 상상의 산물이었을까?” 의혹을 품으며 대문을 훑어보는 내 눈에 문득 그 한가운데 용접된 사자 모양의 문고리가 다가왔고, 나는 허전한 웃음을 흘리며 뒤이어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고정된 언어를 통해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또한 대부분의 중요한 전달사항은 문자 사이에 있음을, 그러니까 옳든 그르든 독자의 상상력이 결국은 언어의 벽을 뛰어넘거나 그 틈새를 메우는 주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따라서 역자로서 나의 상상력의 투입은 때로는 어이없는 오역으로 지울 수 없이 고착될 수 있음을.

그렇게 나는 번역이 때로는 번역이 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떠날 수는 없었다. 나의 아이들이 한창 동화를 통해 세상과의 통로를 여는 일정 기간 동안 내게는 술한 독일어권 동화를 우리말로 옮기는 삶의 시기가 이어졌다. 《모모》를 비롯하여 '그림' 형제의 동화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보면 대가의 목청 뒷전에서 반주자의 역할로 숨으려던 나의 애초의 의도 역시 결과적으로 간접 노출되고 말았음을 지금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신에 찬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한 비집자의 쭈뼛대는 역정의 자국이랄까.

창작과 다른 뜨거운 열정으로

적지않은 세월 동안 나로서는 헤아려보지도 않은 무수한 독일어권 책들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해오면서도 내게는 여전히 이렇다 할 번역의 이론이나 원칙 같은 것은 없다. 되풀이하거나 그것은 두서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삶과 동반된 원칙 없는 작업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를,

심지어는 인간의 심성까지도 얼마든지 대신할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 나같은 류의 역자는 곧 입지를 잃으리라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기야 그런들 어떠하리.

“당신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언젠가 어느 소박한 모임에서 이런 설문을 놓고 제각각 나름의 관심사에 따라 의견을 펼친 적이 있었다. 그때 즉흥적으로 떠오른 나의 유토피아상(像)은 모든 인류가 하나의 말을 쓰는 세계, 바벨탑 혼란 이전의 원초적 인간의 삶이었다. 물론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어떤 이는 이념이 제거된 한마당에서 정치적 정의사회가 구현된 세계가 바로 유토피아라고 뜨거운 주장을 펼쳤고, 한 순박한 주부는 전원의 아름다운 주택에서 자연과 하나가 된 고요한 삶을 자신의 꿈으로 제시했었다. 어쨌든 한마디로 모든 인간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 장벽이 허물어진 세계, 태초에 신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에서 '한마음'으로 사는 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유토피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렇다. 모든 인간이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일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 즉 유토피아이다. 또한 그보다는 한단계 낮은 차원이겠지만 하나의 말로 통용되는 세계, 낮선 말과의 씨름이 없는 세계 역시 전쟁 없는 세계처럼 유토피아일 것이다.

어쩌다 이 궤도를 탄 나의 길은 그런 의미에서 유토피아로 향하는 맹목의 길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렇기는 해도, 모든 언어 사이의 빈 틈을 메우는 인류 공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설혹 그것이 더러는 넘겨짚는 오류를 범할지라도 (그것이 인류역사의 큰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얼마나 위안이 되는 일인가.

컴퓨터가 제아무리 맹위를 떨치며 앞으로 전 인류의 생활을 지배할지라도 그것이 끝내는 따뜻한 생명체가 될 수 없는 한, 그래도 내게는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창작이 그렇듯, 번역작업 역시 뜨거운 온기 없이는 가동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